



영화 <무산일기>  
(THE JOURNALS OF MUSAN)

-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세계인의 심장을 움켜쥔 바로 그 영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2010 부산국제영화제  
뉴키친스상, 국제영화비평가협회상

2010 아라케리국제영화제 대상

2011 도데르담국제영화제  
대상, 국제비평가협회상

2011 도빌시인영화제 심사위원상

# 무산일기

감독 박정범

블로그: NAVER.COM/MUSAN2011

박정범 진용욱 강은진 (특별출연) 박영덕 (특별출연) 박연희 (특별출연) 세컨드윈드 필름 (공동제작) 배그 영화사 (진진)

2011. 4. 14

본 영화의 수익금 일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동물복지재단은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복지재단 홈페이지(www.dobocare.org)를 방문하십시오. 동물복지재단은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복지재단 홈페이지(www.dobocare.org)를 방문하십시오.

# 1. <무산일기>를 만든 사람들

## (1) 박정범

'쫄병 박정범'은 외출을 나가면 고참 병사들의 강요로 비디오대여점에 들러 에로영화를 빌려서 부대에 복귀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비디오대여점 안에서 헌병대를 만난 그는, 당황한 바람에 급하게 아무 영화나 빌려서 나온다.

그 영화는 코미디언 출신의 감독에서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된 일본 감독 기타노 다케시의 연출 데뷔작이자, 국내에 최초로 정식 수입된 일본 영화 <하나비>.

고참의 엄청난 원성을 사며 보게 된 그 영화는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영화의 매력에 빠진 그는 영화를 직접 만들고 싶다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제대 후에 진로를 바꾸게 되고, '영화감독 박정범'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는 '배우 박정범'이기도 하다.



# 1. <무산일기>를 만든 사람들

## ■ (2) 전승철

- '주인공 전승철'은 사실 박정범의 후배였던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탈북자 전승철'이 모델이다.
- 남한에 와서 영화를 배우다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은 북에서 온 친구 전승철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감독은 '125 전승철'이라는 단편영화를 한 편 만들었다.
- 그런데 그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전승철을 위해, 미안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시 우여곡절 끝에 장편영화로 만든다.
- 감독이 죽은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사는 그가 탈북인이라는 이름의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오롯이 스크린에 담아내는 일이었다.
- 그리고 그 영화는 세계의 여러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다. 지금까지 무려 17개.

## 2. <무산일기>의 힘?

- 그렇게 세계인들이 이 영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이 투박하고 우울한 영화의 어떤 마력이 세계인들에게 감흥을 주었던 것일까.
- 어느 뜻심 있는 신인 감독의 진정성과 진지함에 대한 찬사? 탄탄한 내러티브의 힘? 단선적이지 않은 관점? 확실한 것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빼어난 연기의 힘은 아니리라.
- 분단된 남과 북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어떻게 '보편적인' 감성에 근접할 수 있는지, 조금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 고민이 깊지 않아 짧은 시간에 급하게 준비된 관계로, '가볍게' 발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3. 간략한 줄거리 대신 예고편



### 3. 제목 ‘무산’의 다의성

#### (1) 무산(茂山)

-함경북도 무산군. 북쪽으로 두만강과 접하고 있는 함경산맥 북서부에 펼쳐진 백무고원 지대이며, 그 이름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1,000m 이상의 높고 울창한 산지를 이루고 있다

-한때는 북한 철광석 생산량의 40%를 생산했었지만, 지금은 헐벗은 민둥산이 많다고 한다.

-힘준하고 외딴 국경지대; 외로움과 소외

⇒분단상황의 상기

탈북자의 이야기임을 암시



### 3. 제목 ‘무산’의 다의성

#### (2) 무산(無産)

-서울의 승철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노동계급이다.

-승철은 굶주림과 죄의식으로 고통스럽던 고향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왔지만, 서울에서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無産者, proletariat)로서 자본에 의해 가장 밑바닥으로 편재될 수밖에 없다.

-승철을 거부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어떤 남한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하거나 탈북인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밑바닥 3D업종에 다다른 거대자본의 인격적 담지자들일 뿐이다.

-한편으로, 이 영화 자체가 자본 없이 '맨땅에 헤딩하기'식으로 만들어진 저예산 독립영화이기에, 'The Journal of Musan'은 비유적으로 고단한 독립영화 제작과정의 일지로도 읽을 수 있다.

⇒ 무산계급과 도시극빈층의 일상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 관찰  
약자와 소수자로서의 탈북인의 존재





-포스터 붙이는 일을 하다가 다른 이들의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린치를 당하고, 칼로 그어지는 그의 오리털 점퍼와, 주는 사랑만큼 그를 따르는 길 잃은 강아지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 바둥거리고 혈떡이며 개 같은 오늘을 사는 승철의 모습이다.

-어디에서나 거부당하고 고립되어 있던 승철이가 교회 성가대의 일원이 되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는 롱 테이크 장면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종교의 위선(그 양자의 결합)이 집약되어 있는 남한의 풍경이다.

### 3. '무산'의 다의성

#### ▪ (3) 무산(霧散)

- '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없어짐.'

- 옥수수 때문에 친구를 실수로 살해한 승철은, 남한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승철의 희망은 무산된다.

- 후반부로 갈수록 우직하고 정이 많고 고지식한 승철은, 기존의 '정체성'이나 '양심'과 '신념'을 모두 잃어버리고, 점차 남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송금 브로커로 먹고 사는 친구 경찰보 남한 자본주의에 더 동화된다.

- 그것은 "니가 착한 줄 알아? 너는 너 밖에 몰라"라는 경찰의 말에서도 암시되듯이, '이기적으로, 좀 더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존재방식이다.

-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남한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설렘이나 동경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체제를 이탈하는 순간 그들에게 가장 간절해 지는 것은 안전한 도피처, 긴 여정의 종착지로서의 '남한 땅'을 밟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곳에서 승철이 꿈꾸던 남한식 삶은 점점 무산되고, 철거지역의 임대아파트 밖은 '먹고살기 고달픈' 전쟁터가 되어간다.

=> 탈북인의 흔들리는 정체성, 코드화된 남한국민 되기 - 시장에서 홀로 살아남기

### 3. '무산'의 다의성

#### ▪ (4) 무산(無算)

-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음.'

- 승철이가 키우는 '믹스견'은 그의 친구 경찰이가 애견샵에 팔아버릴 수도 없는 흔 해빠진 '생명'이다.

그런데 그 개는 승철이가 애착을 갖는 대상이자(그가 대상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타자를 대상화시키는 유일한 방식),

천대 받고 차별 받는 승철이 자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더불어 혈통 없는 잡종으로서의 그 개는 남한사람으로도, 북한사람으로도 존립할 수 없는 승철의 이중적 정체성(착종된 정체성)을 드러낸다.

- 정착 초기에 그들은 고립성과 불안함으로 인해 타인의 기억을 끌어들이 자신의 이북 경험으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탈북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도 그들의 탈북 정체성으로서의 코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 남한 내 탈북인커뮤니티가 커지더라도 그들이 가진 캐릭터의 어떤 전형성과 획일성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에게 허락된 '탈북인됨(임)'의 실현 즉, 남한사회가 바라는 탈북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어떤 폐쇄회로가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 또는 화용론적 모순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들이 하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된 정체성은, 그것을 수행하면 할수록 그것의 담지자는 점점 더 자신을 모르게 되는 모순에 빠지고,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남한사회에서 주체로 거듭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역할분배로서의 정체성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탈북자의 그것에 대한 접근방식은 그 권력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궤를 달리 해야 한다.
- '탈북입남'이 분단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태가 아니라면, 조선족, 자이니치, 고려인과 다른 탈북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 영화에 비친 오늘날의 탈북인들은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때는 갈구했을 변화와 자유를 위해 주체적 욕망과 집단적 연대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할 여력이 없다. 서울에서 자유를 누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는 데는 승철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결국, 승철도 도시에 흠어진 존재로서 주어진 정치경제적 상황과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입된 욕망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 Ending



-이 영화의 엔딩은 갑작스러운데, 승철은 자신의 분신 같았던 개가 죽은 것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이내 등을 돌려 외면하고자 한다. 이 장면의 롱테이크와 암전의 조합은 아주 인상적이고 강렬하다.

-여전히 외로울 것임을 암시하며, 끝내 자신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듯한 승철의 마지막 장면은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무산(無算)하게 산개(散開)되어 있는 생활인들,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을 자조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그 마지막 장면은 무산에서나 서울에서나 적응하지 못하던 이전의 승철이는 이미 사라졌음을 조용히 증언한다.

우리는 검은 아스팔트 위에서 죽은 흰 개와, 죽은 개를 외면하는 승철이와, 스크린에 비춰진 그 승철이를 바라보는- 방금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나 자신을, 마치 여러 겹의 '거울'을 보듯이 동시에 응시한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영화 속에서 승철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직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기욕망의 주체이며, 자신의 변화를 오히려 담담히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카메라는 도저히 그런 승철이를 바로 보지 못하겠다는 듯 연신 뒷모습만 비춘다. 그래서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속여 파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조신하고 정숙한 성가대원으로 사는 숙영, 그녀로 상징되는 남한 사람들이 오히려 '분열된 주체'이며 자신의 욕망을 기만하는 주체로 보여지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이 영화는,

## <1> “무산(茂山)을 떠난 무산자(無産者)의 일기”

본래 험준하고 무성한 숲이 많았던 함북 무산마저 민둥산이 되고, 먼 길을 돌아 '북녘의 무산자에서 남녘의 무산자로' 편입하게 되는 승철의 이야기는,

탈북 난민에서 도시빈민으로 안착하게 되는 과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을 만들어 내면서, 그 모든 과정으로서의 분단 인식은 을씨년스럽고 비루하고 남루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으로서 분단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 <2> “탈북자라는 거울에 비친, 남한사회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 대한 관찰기”

- 탈북인들이 국가라는 상징권력 안에서 '국민이 되고', 시장이라는 실물권력 안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로 환원되는 과정 속에는 권위주의 시대 남한 사람들의 교육/훈육과정이 응축되어 있다.
- 탈북자라는 코드화된 '거울'을 통해서, 이 영화는 결국, 비인간화되고 분열된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모순된 사회공동체(지금-여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 남녘인들의 자조적인 의식을 담고 있다.
- 승철이 친구 경찰의 돈을 훔쳐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스꽝스러운 바가지 머리를 바꾸고, 양복을 입는 등 좀 더 남한사람 같이 '변화'하는 모습에서부터, 카메라는 그에게서 떨어진다.
- 핸드헬드의 흔들리는 카메라가 인물에 밀착하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관객들은 주인공 승철의 캐릭터에 동화될 수 없었지만, 관객에게 인물과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후반부에서부터는 오히려 주인공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다.  
“답답했지? 바로 이게 당신들이 바라던 '변화'와 '적응' 아닌가? 배신이나 타락이라고 해도 좋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3> 결국, 남한 사람들의 자조 섞인 각성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무산(茂山)에서 온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 본,  
신자유주의 시대 말기 무산(無算)한(수많은) 무산자(無産者)들의  
무산(霧散)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 영화는 결코 새터민들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다.
- 주인공 승철을 연기한 박정범 감독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친구 승철이를 통해, 배고프고 춥고 고통스러운 삶을 탈출해 '그들'이 남한에서 겪었고 겪고 있을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북녘 사회보다 더 잔인하고 차가운 남한 사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목숨을 담보로 사선을 넘어 온 그들은 다시 이 땅에서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비열해지고 기만적이 될 필요가 있으며, 그 모든 타락을 숨길 수 있게 적당히 위선적이어야 한다.
- 그런데 그들은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물려받거나 성취하지 못했기에 그토록 험뎅거리며 살아야 하는, 도시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무산일기>는 속물들에 대해 조소하면서도 사실 좀 더 신자유주의적으로 속물 되기 신을 욕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남한 사회의 화려하지만 삭막한 풍경과 우리 내면을 담담한 어조로 반추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보다는 돈, 정(情)보다는 이윤, 속보다는 겉데기, 올곧고 따뜻한 양심보다는 비겁하고 차가운 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

남녘의 인민들은 이 땅이 싫어지면 어디로 '이탈'할 수 있을까?

결국 난 영화를 보고 나오며 씁쓸한 뒷맛이 가지지 않아 저녁밥을 거의 못 먹었다.



## 4. '우리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

- 혹자들은 '그들'을 '탈북자'라고 부르는 대신 '새터민'으로 고쳐 부르자고 하지만, 사실 그 말 뒤에는 '구린 현실'을 은폐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강자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담겨 있지 않을까.
-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부르기가 난망한 '장애우'라는 용어처럼, 그 말은 구분되고 호명되기 위한 지칭어일 뿐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라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우리'와 동화될 수 없는 '타자'일 뿐일 그들의 처지를 꿈임없이 환기시켜준다. 그들은 북녘에서 건너 온 영화 속 승철이처럼 남한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는 있겠지만, '125'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에 덧씌워진 차별의 시선은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가장 중립적으로 정착된 명칭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은 어떠한가. '새터민'이 새로운 홈그라운드를 강조했다면, 여기서도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홈그라운드를 '이탈'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탈자는 늘 쫓길 뿐이다.

- 그동안 탈북자를 그린 상당수의 영화들에서 그들을 지나치게 희화화되거나, 분단의 아픔을 드러내는 장치로서만 영화 속에서 이용되었다.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탈북자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영화인 <무산일기>는 탈북자의 정체성과 '그들'을 대상화하는 '나'의 시선을 보다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 대상화하는 우리들, 대상화되는 그들 사이에서(또는 그 역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상화하고 있는가가 아닐까.
- 영화 속에서 승철이 제일 많이 하는 대사는 아래 2가지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 그들의 엑소더스 행렬은 긍정적 통일을 앞당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 '우리'와 '그들'의 접점과 간격을 어떻게 이해하는 방식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방법론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탈북자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대상화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 '과거형 문법을 따르거나, 전통문화와 동질성(교집합/공통분모)에 집착하며, 동일성이나 혼종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탈북인 민들을 미래지향적이고 유동적인 '민족공통성(national commonality) 개념'에 어떻게 부합시키고 포섭할 수 있을까?
- 영화가 끝났지만,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영화 <무산일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 토론

1. 무산(茂山) → 無産 가지지 못하는 자  
→ 霧散 꿈꾸던 남한식 삶의 무산

“기존의 양심·신뢰를 버리고, 분열된 주체로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사회”

▷ 한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양심과 신뢰를 버려야 살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열된 주체’가 되는 과정은, 탈북자들의 그 과정과 다르다. 앞으로 연구할 때 어떻게 차별화 시킬 건지에 대해 궁금하다.

2. 영화를 보면 승철이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멸시를 많이 받았다. 유학생인 저는 승철이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살면서 차별 받은 적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차별 받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승철이와 같은 탈북자가 외국인인가. 대부분 한국인이 베트남사람·중국사람·미국사람을 보면, ‘외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탈북자를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이 영화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제3의 존재로 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탈북자들은 외국인보다 대우 못 받고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자기정체성을 다시 찾거나 명확히 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한국사회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화를 강조하면서 외국인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와의 교류나 공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강아지는 천대 받고 차별 받는 승철이를 상징한다. 더불어 잡종으로서의 그 개는, 남한 사람으로도 북한사람으로도 존립할 수 없는 승철의 이중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승철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탈북자라고 말 하면 안 되고, 간신히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멸시와 차별 받았다. 남한에서 믿을 만한 사람, 자기를 완전 받아줄 사람은 없다. 따라서 강아지는 유일한 마음 놓고 대할 수 있는 ‘친구’ 혹은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강아지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외롭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 하던 승철이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강아지의 죽음은, 과거 착하고 성실한 승철, 멸시받고 살았던 승철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 남북한 비교문학 연구

- 국순전(麴醇傳)의 연구사를 통한 남한의 가전(假傳)과 북한의 의인전기체산문 비교-

조홍윤(정서문예팀)

### 1. 서론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을 대비한 국문학계의 역할 찾기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른바 ‘통일 문학사’의 기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sup>1)</sup> 그것은 우리 겨레의 삶과 정서가 응축된 ‘문학’이 남북이 한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통일 문학사의 기술을 통해 사상적·정서적 공감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었다.<sup>2)</sup> 지금까지는 그러한 논의들을 통해 통일문학사 기술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거의 10년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과 방법론에 있어서 확고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마냥 큰 틀에 대한 논의로만 시비를 가리려 하다가는 내실없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크다. 이제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한발씩 내딛어 가며, 그 행로를 수정해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

고전문학의 경우, 남과 북이 모두 ‘내것’으로 삼고 있는 공동의 유산으로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sup>3)</sup> 분단 이후의 상반된 정치·사회적 환경아래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던 현대문학에 비해, 수천 년의 시간을 공유했던 고전문학은 남과 북의 민족적 공통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통일문학사의 기술을 위해 먼저 남북의 고전문학 연구가 지나온 경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른 체제하에서, 공동의 문학작품에 대해 남북은 어떠한 시각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그러한 차이에도 어떠한 공통성을 보여주고

1)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2001.

이명재, 「한겨레 문학사 기술 방법론」, 『어문논집』 30, 중앙어문학회, 2002.

서동수, 「남북문학사 통합기술의 전망」, 『겨레어문학』 28, 겨레어문학회, 2002.

김영, 「통일을 대비한 한국문학사 서술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2002.

2) 김영, 「통일을 대비한 한국문학사 서술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2002, 110쪽.

3)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2001, 50쪽.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통일문학사로의 전진을 위해 고려할 점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서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임춘의 <국순전>을 주목하게 된다. <국순전>은 남한에서는 ‘가전(假傳)’, 북한에서는 ‘의인전기체산문’으로 분류되는 장르의 시초로서, 같은 작품에 대한 남북 연구자들의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순전>에 대한 남북의 연구사를 비교하고, 그 차이와 공통성을 기반으로 통일문학사 기술을 위한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 2. 남북한 연구사 비교

<국순전>은 임춘(林椿, 1147-1197)의 작품으로, 술을 의인화하여 그 내력과 행적, 그에 대한 평을 내리는 가전(假傳)형식의 작품으로, 현전하는 가전체문학의 효시라 알려져 있다. 임춘의 사후에 이인로가 그의 작품을 모아 6권으로 엮은 『서하선생문집(西河先生文集)』 제5권, 서거정에 의해 본문 130권 42책과 목록 3책으로 편찬된 『동문선(東文選)』 제100권에 실려 있다. <국순전>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 성과들을 살핀바, 남북 공히 『동문선』 수록 본을 주요 연구 자료로 삼고 있기에, 본고의 내용 또한 서거정의 『동문선』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sup>4)</sup>

또, <국순전>에 대한 남한의 연구는 접근이 용이하고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논의의 맥락에 따라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북한의 연구는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연구사를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남한의 연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2.1. 북한 연구사

북한의 문학 연구는, 국가 주도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지침에 따라 집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선어문』이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등의 국문학 관련 학술잡지의 논

4) <국순전>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순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며 조상은 농서(隴西) 사람으로, 90대조인 모(牟)는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을 먹여 살린 공이 있었다. 이에 중산후(中山侯)로 봉해져 성을 국씨라 하였다. 이후 강왕(康王)이 위에 오르자 점차로 박대를 받아 금고(禁錮)에 처해지고, 그 후대는 숨어살게 되었으나, 위나라 초에 그의 아비 주(酎)가 상서랑(尙書郎) 서막(徐邈)과 교분을 맺은 것으로 다시금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순(醇)의 기국과 도량은 크고 넓어, 자못 기운을 사람에게 더해주었다. 일찍이 섭법사와 온종일 담론하여 일좌(一座)가 모두 졸도 하게 만들때 비로소 유명해져 국처사(麴處士)라고 불렸는데,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하였다.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다.” 하니, 그의 애중(愛重)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서는 입금을 취하게 하여 정치를 돌보지 않게 하고,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니, 시론(時論)이 그를 더럽다고 하였다. 마침내 내쳐짐을 받아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이 다행 하루 저녁에 죽고 말았다. 그는 아들이 없었으나, 그의 족제(族弟) 청(淸)이 뒷날 당(唐)에서 벼슬하여 내공봉(內供奉)에 이르렀는가 하면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국씨(麴氏)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청백(淸白)을 자손에게 끼쳐 창(嘗)이 주(周)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향기로운 덕(德)이 하늘에게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제 할아버지의 풍이 있다고 하겠다. 순(醇)이 들병의 지혜로 독 들창에서 일어나서, 일찍 금구(金甌)의 뿔힘을 만나 술 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가(可)를 들이고 부(否)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왕실(王室)이 미란(迷亂)하여 엎어져도 불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거원(巨源)의 말이 족히 믿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 서거정, 『(국역)동문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5, 50~52쪽 참조.

문또한 그러한 지침을 따른다. 따라서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는 남한에 비해 그 연구의 방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남한에서 확인 가능한 관련 연구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조선문학통사』 1, 이회문화사, 1996)
-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天池, 1995)
- ④ 정홍교, 『조선문학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⑤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호, 1999.
- ⑥ 리성,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 『민족문화유산』 1호, 2006.

제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경향을 다음 몇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장르의 구분에 있어서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장르가 확립되어 있어 <국순전> 또한 이에 포함된 작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의인전기체산문이 장르 자체에 일정한 주제지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주제지향에 따라 작품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 <국순전>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로 그 주제적 측면에 집중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점들을 중심으로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를 소개해 본다.

### 2.1.1. ‘의인전기체산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연구

1959년에 간행되어 가장 앞선 시기의 연구로 확인되는 ①에서는, 남한에서 ‘가전’으로 분류되는 장르에 대하여 따로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고, 소설과 수필, 비평을 포함하는 ‘패설’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패설’ 문학의 출현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패설’ 문학은 조선 산문 분야에서 소설 문학의 남상(濫觴)으로 되며 수필 문학과 문학 비평의 효시(嚆矢)로 된다. ‘패설’ 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소설적 요소는 12세기 후반기 13세기에 들어 와서 활발히 창작되기 시작한 임춘(林椿)의 「국순전(麴醇傳)」, 「공유전(孔有傳)」, 이규보(李奎報)의 「국선생전(麴先生傳)」, 「노극정전(盧克淸傳)」 등과 함께 근대적 소설의 선구자로 될 뿐 아니라 후기 소설 형성에 크게 작용하였으며, 수필 문학 형태로서의 사실주의 작가 연암 박지원의 불후의 노작 「열하일기(熱河日記)」와 같은 근대적 잡문의 선구자의 역할을 놀았으며, 시화 형태로서의 패설 문학은 15세기 후반기의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노작 「동인 시화(東人詩話)」와 같은 문학 평론의 출발로 되었다.<sup>5)</sup>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화다, 1989), 145쪽.

인용된 내용을 보면, ‘패설’은 특정한 장르를 지칭하기 보다는, 12세기 이후의 잡문형식으로 지어진 일련의 산문 작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순전>을 포함한 가전 작품들 또한 이러한 패설로 구분되어, 소설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되면서도 개별적인 장르로서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 간행된 ②에서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장르로 재정립되며 그 문학사적 가치를 재고 받기에 이른다.

북한의 문학 연구는 크게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과 이후로 대별된다. 주체사상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 문예이론이 그 미학적 원리를 이루고, 주체사상확립 이후에는 주체문예이론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1959년에 간행된 ①에서는 고전문학사의 기술이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1977년에 간행된 ②부터는 사회주의적 보편성이 약화되고 문학의 고유성과 주체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국순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②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인전기체 산문은 패설과 더불어 12세기 후반기~14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산문 형태의 하나이다.

의인전기체 산문은 선행 시기에 이루어진 전기와 우화의 창조 경험에 의거하고 그것을 당대의 변천된 사회 역사적 현실과 새로운 사상 미학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산문 문학의 독특한 형태이다.

의인전기체 산문은 동식물이나 물건을 의인화하여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의인화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물건의 내력과 생활을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며 그를 통하여 현실 생활을 반영하는 것을 자기의 특성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의인전기체 산문은 실제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실지 있는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는 전기 작품들과는 달리 작가의 예술적 허구에 기초하여 동식물이나 물건을 의인화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점에서 전기와 구별된다.

의인전기체 산문은 또한 의인화의 수법을 쓰고 있는 점에서 우화와 공통성을 가지지만 전기 형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여 우화와도 구별된다. 우화는 많은 경우 의인화된 등장 인물들의 형상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기승전결이 있는 엮음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그러나 의인전기체 작품들에서의 이야기 줄거리는 의인화된 주인공들의 내력과 활동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엮여져 있다. 이처럼 의인전기체 산문은 전기, 우화의 예술적 수법과 서술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예술적 산문 형식으로 출현하였다.<sup>6)</sup>

위의 인용에 따르면, 의인전기체산문은 전기와 우화의 창작 경험이 당대의 현실과 사상 미학적 요구와 만나 성립된 ‘새로운 산문 형태’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의인전기체산문의 장르적 독자성을 말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 문학이 축적해온 과거의 자산에 의한 것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문학이 내적으로 합법칙적인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는 북한 문학 연구의 대전제에 따른 것이다.

의인전기체산문은 동식물이나 물건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내력과 생활을 전기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특징인데, 실재한 사람과 실제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작가의 허구에 의한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전기와 구별된다. 또한 의인화의 수법을 쓰는 점에서 우화와 공통점이 있으나, 전기 형식을 사용하는 점에서 그와 구별된다고 한다. 따라서 의인전기체산문은 단순히 전기와 우화의 답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산문형식의 출현’이라고 평가받는다.

이에 더하여 1983년에 간행된 ③에서는 전기문학과 구별되는 의인전기체산문의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서 장르의 성격을 확고히 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1, 1977(이회문화사, 1996), 215~216쪽.

의인 전기체 문학은 1170년 무신 정변 이후 더욱 어지러워진 봉건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창작적 시도와 결부된 예술적 산문 형식이다. 12~13세기 일부 진보적 작가들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타 사물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전기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무신 폭정하의 사회 현실에 대한 자기들의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의인화적 수법을 통하여 봉건 사회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러므로 의인 전기체 문학은 당시 현실과 인간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산문 형식의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중략)

의인 전기체 문학은 선행 시기의 전기 문학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인물이 행장이나 가문의 흥망 성쇠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시키는 것은 전기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인 전기체 문학은 의인화적 수법이 이용된다는 점에서는 우화 문학과도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은 자기의 고유한 형태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작가의 예술적 허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 문학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든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므로 예술적 허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에서는 현실을 반영함에 허구가 작용해야 한다.

둘째, 의인 전기체 문학은 의인화적 수법에 의하여 형상을 창조한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의인화된 형상이다. 전기 문학은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고 기록한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에서는 의인화된 동물과 식물이나 물건 등을 등장시켜 당시의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성을 풍자하고 폭로한다.

셋째, 의인 전기체 문학과 전기 문학은 사상 주제적 과업에서 구별된다. 전기 문학은 당시 봉건 사회에서 양반 계급을 내세우고 보여주기 위한 산문 형식으로서 많은 경우에 봉건 왕조와 봉건 질서의 찬양과 공고화를 주제 사상적 과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은 기본적으로 당대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사상 주제적 과업으로 하고 있다.<sup>7)</sup>

여기서는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장르 자체가 봉건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창작의도에 결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품이 아니라 장르 자체가 일정한 주제적 지향을 지닌다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질로 부각된 것이다. 또 의인전기체산문의 ‘고유한 형태상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전기 문학이 실재한 인물과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 비해 작가의 예술적 허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의인화의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 전기 문학이 봉건 왕조와 봉건 질서를 찬양하고 공고화하는 것에 비해 당대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사상 주제적 과업으로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②의 설명에 비해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적 지향성에 대한 언급이 추가 되었다고 하겠으나, 그 형태상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우화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1994년에 간행된 ④에서는 ②에서 이야기한 장르 개념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특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의인전기체산문의 새로운 특징은 우선 작가의 허구에 의하여 꾸며지는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인전기체작품에서의 이야기줄거리는 대체로 의인화된 주인공의 가계와 출생담으로부터 시작되고 흥망화복의 복잡한 생활로정과 결부된 성장과 활동과정의 구체적인 세부들로 엮어진다. 의인 전기체작품들은 또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가의 평을 주고 그를 통하여 작품의 사상적지향을 강조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성격은 의인화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동식물이나 물건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그것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 주인공은 긍정인물로 의인화될수도 있고 부정적인물로 될수도 있다.

7) 김일성종합대학 편, 임현영 해설, 『조선문학사』 I, 1982(天池, 1995), 165~166쪽.

의인전기체산문에서 주인공은 철저히 의인화된 가상적인 인물이나 그와 관계를 맺고있는 다른 등장 인물들은 의인화된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사는 실제적인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 의인전기체산문이 등장인물 모두가 의인화된 인물로 형성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우화나 우화소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있다.

의인전기체작품들은 또한 형상창조에서 구체적인 생활세부가 도입되고 초상과 행동 등에서 묘사가 주어지고있으며 작중인물들의 대화와 작가의 지문이 일정하게 구분되고있는 점에서 일종의 소설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것으로 하여 이전시기의 다른 예술적산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여기서는 의인전기체산문의 특징인 전기적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②와 ③에서 설명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가의 평’ 부분에서 작품의 사상적 지향이 강조된다고 한 점, 의인화의 대상물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해 주인공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 새롭다. 또한 ②에서 의인전기체산문이 우화소설과 구별되는 점을 그 전기적 형식에서 찾은 것에 더해, 작중 인물 중에서 주인공만이 의인화된 존재라는 점을 또 하나의 구별 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하여, 구체적인 생활상의 도입, 초상과 행동 등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점, 작중인물들의 대화와 작가의 지문이 구분되는 점에서 소설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점에서 이전시기의 산문과 차이점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국순전>을 포함한 가전 작품들을, 소설을 비롯한 후기 산문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패설’의 범주에 귀속시켰다가, 그 독특한 형식으로 인해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개별 장르로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의인전기체산문 자체에 현실 비판을 지향하는 선구적인 장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그 개념이 확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1.2. 반봉건적 주제지향의 작품으로서 <공방전>과 함께 논의 하는 경향

의인전기체산문의 장르 특성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장르 자체가 일정한 사상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개별 작품들에 대한 비교 연구도 작품의 주제적 지향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지향에 대해 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 의인전기체소설작품들에 반영된 주제사상적특성은 첫째로, 당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인재선발, 등용에 대하여 제기한것이었다. 이 시기 진보적인 작가들은 봉건군주가 청렴결백하고 대바른 충신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간신들만을 가까이 하고있다는 사상을 작품에 담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의 정사는 돌보지 않고 권력다툼, 탐욕적인 개인향락과 치부, 부화방탕한 생활만을 일삼고 있던 당시의 봉건통치관료배들과 무능하고 암매한 봉건왕의 더러운 생활리면을 이모저모 들추어 폭로비판하는데 집중하였다.

의인전기체소설 《국순전》의 주인공은 술이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국순의 먼 선조인 보리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행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향락적인 생활을 폭로비판하고있다.

(중략)

의인전기체소설 《공방전》도 그 내용은 《국순전》과 같은 사상주제적과업을 제기하였다. 주인공

8) 정홍교, 『조선문학사』 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0쪽.

은 돈(염전)이다. 그는 땅속깊이 파분혀 있던 쇠들의 손자이고 철의 아들이다. 그의 후대에 와서 나라의 높고 주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맡은 일은 힘써 하지 않고 탐욕스러워 돈을 긁어모으고 사람들을 돈만 아는 시정배, 건달군으로 만들었고 또 권세있는자들의 집에 드나들면서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아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sup>9)</sup>

위의 내용처럼, 인재 선발과 등용의 문제와 관련한 문제로서 부패한 봉건적 통치자들과 무능한 봉건 군주에 대한 비판을 그 첫째로 꼽으며, 그와 관련한 작품으로 <국순전>과 <공방전>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덕성에 대한 찬양을 그 두 번째 주제지향으로 꼽는다.

의인전기체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둘째로 작품을 통하여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서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며 옳은 일을 위해서는 항상 강직하고 결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윤리도덕을 찬양한 것이다.

리규보의 《청강사자현부전》, 리곡의 《죽부인전》 등은 저부기, 참대를 주인공으로 의인화한 작품으로서 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작품에서 형상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덕윤리적인 문제들을 보여주었다.<sup>10)</sup>

위와 같이, 사회에서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며 강직하게 살고 있는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도덕성에 대한 찬양을 주제지향으로 삼은 작품으로 <청강사자현부전>, <죽부인전>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위도식하는 봉건관료에 대한 비판을 그 셋째로 꼽고 있다.

의인전기체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셋째로, 아무런 재간이나 능력도 없이 높은 벼슬자리를 타고앉아 하는 일 없이 라태한 생활에 빠져 무위도식하는 기생충적인 봉건관료들의 생활을 풍자폭로한 것이다.(중략)

특히 무위도식자, 라태한 생활에 빠진 량반관료들을 풍자비판한 작품은 성간의 《용부전》이다.(중략)

용부는 주인공을 의인화한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형상적이름이다. 어쨌든 《용부전》은 의인전기체소설들이 활발히 성행하던 시기에 그 풍조속에서 그 시대의 부정적사회현실과 무능력한 봉건관료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사상적 공통성을 가지고 창작된 작품이며 《게으른 성질》을 이름화하여 씌여진 작품이다.<sup>11)</sup>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위에서는 <용부전>을 꼽고 있다. 과연 <용부전>을 의인전기체산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이 경우에도 그 주제는 반봉건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 사상적 지향에 대해, 크게 ‘반봉건’과 ‘도덕성에 대한 찬양’이라는 두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순전>은 인재 선발과 등용의 문제에 대한 반봉건적 주제지향의 작품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따라 같은 주

6)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호, 1999.

10)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호, 1999.

11)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호, 1999.

제지향으로 묶인 <공방전>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확인 된 논저 중에서는 <국순전>에 대한 모든 논의가 <공방전>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인전기체산문의 선구적작가의 한 사람인 립춘은 《공방전》, 《국순전》 등에서 돈, 술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무신정변이후 정계의 추악한 현실을 재현하고 무신통치배들의 전횡과 부정부패행위를 폭로비판하였다.(중략)

이로서 《국순전》은 《공방전》과 함께 후기의 의인전기체산문의 창작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④<sup>12)</sup>

의인전기체소설 《공방전》은 주인공 공방의 생활을 객관적묘사를 통해 여러모로 보여주면서 그의 개성적성격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주인공의 운명을 사회력사적 관계속에서 밝히고있다. 주인공 공방은 탐욕한자로서 나라의 정사에는 관계없이 재물을 끌어들이고 돈으로 벼슬도 사고 파는 매관 매직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형상하였다.

《국순전》 역시 주인공이 부화방탕한 생활로 나라의 정사를 망치는 간신들의 성격을 전형화하였으며 그의 멸망의 운명을 보여주었다.-⑤<sup>13)</sup>

《공방전》에서는 권모술수로 국가재정을 장악하고 비행을 저지르다가 쫓겨나는 공방일가의 운명을 통하여 부귀출세에 환장한 나머지 인재등용제도와 법질서를 혼란시킨 무신통치배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발가냈으며 《국순전》 역시 국순일가의 흥망을 통해 통치배들의 방탕한 생활풍조와 그릇된 인재 등용으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⑥<sup>14)</sup>

인용된 부분을 보면, <국순전>과 <공방전>이 같은 주제의식으로 묶여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④와 ⑤의 경우에는 다른 의인전기체산문 작품들까지 모두 언급하면서도 두 작품에 대한 논의가 시종일관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논의의 전체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두 작품을 묶어 이야기한다. 또, 다른 작품들에 대한 언급도 두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④의 내용에 두 작품 모두 임춘이 지은 것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작품이 같은 작가에 의해 지어졌기에 그러한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러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두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의 경우에 작가인 임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작품을 묶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각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⑥의 경우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이라 하여, 논저의 제목에서부터 두 작품을 병치시키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춘에 대한 작가론적 측면의 논저이므로 두 작품을 함께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논의를 이끌어어나가는 내내 두 작품을 마치 같은 작품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국순전>과 <공방전>이 거의 같은 작품으로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논저에서 두 작품을 나란히 언급하면서도 각각을 비교해 차이를 드러내지 않

12) 정홍교, 『조선문학사』 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1~305쪽.

13)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호, 1999.

14) 리성,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 『민족문화유산』 1호, 2006.

는다. 오히려 같은 주제적 지향으로 묶인 두 작품을 함께 언급하면서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순전>과 <공방전>이 함께 논의되는 경향을 통하여, 북한에서는 작품 각각의 소재나 서사의 차이를 무화시킬 수 있을 만큼 작품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우위에 놓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1.3. 반봉건적 주제지향에 따른 ‘국순’의 부정적 형상에 대한 논의

의인전기체산문은 장르자체에 공통된 주제 사상적 특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순전>은 ‘반봉건’의 주제 지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제는 <국순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작품이 지닌 반봉건적 주제의식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한다.

<국순전>은 주인공 국순의 행적에 대한 설명이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국순의 인물형상과 행적이며, 작품의 해석 또한 국순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는 것에 집중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순의 원형인 ‘술’의 내력이나 특성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국순의 바탕에 놓인 ‘술’은 오로지 주제의식을 구현해내는 국순의 인물형상으로서만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④의 설명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 술을 의인화한 부정적주인공인 국순은 간신의 전형이다.

국순은 본래 벼슬을 탐내지 않고 《의젓하고 깨끗한 덕》을 백성들에게 전하던 보리의 후손으로서 못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연회때에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두가 쓸쓸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벼슬길에 나서면서부터 출세와 공명을 꿈꾸었고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자 임금의 마음을 틀어잡고 좌지우지 하는 간신으로 변해버리었다.

그는 술로 임금을 유혹하여 정사를 망치게 하고 일이 잘못되는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임금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 득세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충신들이 국순을 원수처럼 미워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sup>15)</sup>

이와 같이 주제적 측면에 집중한 이해는, 주인공 ‘국순’의 인물 형상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기반을 둔 내력이나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특징보다는, 작품상에서 그려지는 ‘국순’이라는 인물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중점을 두게 한다. 부정적인 사물인 술이 의인화 되었기에, 국순은 그대로 부정적인 주인공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의인화된 대상물과 주인공의 형상 관계는 이렇듯 명료하게 설명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혹,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이 언급된 것이, ‘술’이라는 사물의 장점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설명을 보면 그러한 오해를 피할 수 있겠다.

작품에서 주인공 국순의 형상은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으로 임금의 환심을 얻어 권력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충신들을 모해하며 임금을 방탕하게 만들어 국사를 망치고 종당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신의 부정적인 성격적 특질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성격의 규정을 주지 않고 이야기의 전진과정에 성격의 부정적측면을 심화시켜 점차 뚜렷하게 밝혀냄으로써 예술적품위를 한결 돋구어주고 있다.<sup>16)</sup>

15) 정홍교, 『조선문학사』 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4쪽.

말하자면, 어린 시절 국순의 선한 행적은 ‘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결국 국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마는 국순의 인물형상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장치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신의 전형으로 형상화되는 국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를 중용한 임금과의 관계에 까지 이어져, <국순전>을 ‘봉건통치에 대한 비난’이라는 체제저항적인 주제로 나아간 작품이라 이해한다.

작품에서는 또한 주인공 국순과 무능한 임금과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권력의 최고자리에 올라 허세를 부리던 임금의 압둔성과 무능력, 그것이 정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있다.<sup>17)</sup>

간신인 국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중용하여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한 임금의 무능함도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며, 이것이 봉건통치 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⑤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순전>의 체제 비판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주인공 국순의 부정적 형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의인전기체소설 《국순전》의 주인공은 술이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국순의 먼 선조인 보리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행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향락적인 생활을 폭로비판하고 있다.

국순의 조상들은 처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백성들을 돕는 일에 공로도 있었다. 그러나 후대들이 이르러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벼슬에 올라

왕과 더불어 밤낮 취해다니고 부화방탕한 생활만을 일삼았다. 욕심도 많아 재산을 긁어 모으는데도 숨씨가 있었다. 결과 나라안이 어지럽게 되고 자신도 망했다. 소설의 이야기는 단순히 술의 해독작용에 대한것만이 아니다.(중략)

주제는 갑신정변이후에 들어왔은 고관대작의 벼슬아치들의 이야기이며 제기하고있는 사상은 바로 권세와 탐욕,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고있던자들로 하여 초래된 후과와 함께 무능력한 봉건통치자 왕이 간신들을 가까이 하는 그릇된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sup>18)</sup>

여기서는 국순의 선조인 보리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행적이, 그대로 봉건 통치자들의 향락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다. 실제의 작품 속에서 국순의 가문은,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친 바가 더 많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저에서는 국순의 가계가 나라에 대대로 악영향을 끼쳐온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봉건적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국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 2.2. 남한 연구와의 비교

### 2.2.1. 장르 구분과 그에 따른 작품 해석상의 태도

16) 정홍교, 『조선문학사』 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5쪽.

15) 정홍교, 『조선문학사』 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5쪽.

18)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호, 1999.

<국순전>의 장르를 구분함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가전(假傳)’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전’이라는 명칭은 장르적 속성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그 작품 형식상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사서의 열전에 해당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북한에서 의인전기체산문을 우리 문학의 내적 발전에 의한 고유의 문학양식으로 보는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당나라 한유의 <모영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sup>19)</sup> 북한의 주장이 의인전기체산문을 설화에서 소설을 잇는 산문 발전 단계의 중간 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가전의 발생에 대한 남한의 논의는 그 장르의 구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낳고 있다.

가전의 장르 구분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에 따라 교술문학이라는 입장, 서사문학으로서 소설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입장, 그 외에도 가전을 독립성을 지닌 별도의 장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가전을 교술문학으로서 바라보는 경우, 가전의 기본 성격이 사물을 의인화해 사람인 듯 다루면서 그 일생을 ‘전(傳)’으로 서술한 글이므로, 등장시킨 사물을 잘 알아야만 이해될 수 있고, 작품 자체로서의 유기적인 전개는 갖추지 않고 있는 점이 교술문학이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한다.<sup>20)</sup> 가전의 소설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그 서술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물이나 주제의 형상화에 있어서 작가의 표현 욕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점이 그 서사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21)</sup> 마지막으로 가전을 별도의 장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가전이 일반 의인작품이나 우화와는 정반대로 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인간에게는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설화를 수용했으나 설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소설과도 다른 특질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그 형식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지닌다고 보며, 그 우언적 특성에 주목하여, 새로이 ‘우언산문’이라는 장르에 가전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가전의 장르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국순전>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순전>과 가전을 교술문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주인공인 ‘국순’에 대한 이야기로서 작품을 살피

19) 안병설, 「가전에 대한 이견 산고」, 『명지어문학』 7, 명지어문학회, 1975.

2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94(제3판), 121~122쪽.

21) 김광순은 가전을 의인소설의 한 종류로서 다루고 있으며 (김광순, 「한국 의인 문학의 사적 전개와 성장(상하)」, 『국어국문학연구』 15·16, 국어국문학연구회, 1967.), 김현룡은 그의 논저에서 <국순전>에 대하여 ‘소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순전>이 소설 장르로 구분된다는 그의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또한 윤기홍은 가전의 갈래특성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 가전이 ‘서술성’에 기반을 둔 양식임을 인정하면서도 후대에 이르러 규범의식을 지양하고, 점차로 작자의 표현 욕구를 폭넓게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 그 서사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순한 설명의 차원이 아니라 작자의 표현 욕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적 면모를 찾고 있는 것이다. (윤기홍, 「가전체 문학의 갈래와 소설적 전환」, 『목원어문학』 제8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22) 안병렬은 가전과 전기, 가전과 우화, 가전과 소설을 각각 비교하여 형식면에서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내용면에서의 속성을 드러내 가전문학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가전은 일반 의인작품이나 우화와는 정반대로 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인간에게는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설화를 수용했으나 설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소설과도 다른 특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안병렬, 「가전문학과 타장르와의 비교 고찰」,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2001.)

김창룡 또한, 중국 가전과 한국 가전을 망라하여 가전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 형식과 외부적 형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가전이 설화·소설과는 다른 독립된 장르라는 주장을 폈다. (김창룡,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또, 윤주필은 가전의 우언적 특성에 주목하여, 새로이 ‘우언산문’이라는 장르에 가전을 포함시키고 있다.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언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기보다는, ‘술’에 대한 이야기로서 ‘술의 행적’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국순전>에 나타난 술의 행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하나는 국순의 큰 도량과 남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재간 등, 긍정적인 측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돈을 거두어들이는 모습, 하루저녁에 죽고 마는 부정적인 측면의 것이다. 이 두 가지 행적은 술에 관한 것이면서 사람에 관한 것이다. 술은 흥을 돋워주지만 너무 마시면 나라마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술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를 문제 삼는 이면적인 설정에서는 이와는 다른 주장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다. 벼슬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도 승양을 받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벼슬을 해서 나라를 망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는 군주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작자가 자기 처지를 합리화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아 마땅하다고 말한다.<sup>23)</sup>

반대로, <국순전>을 소설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술’의 특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작가의 창작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초점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국순전>을 ‘간사한 정객을 비꼬아 꾸짖고,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려는 목적성을 지닌 소설’이라고 하여 작가의 창작의도에 집중한 작품 해석을 보여준다.<sup>24)</sup> 또, <국순전>이 술을 의인화 하여 그 행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술로 인해 빚어지는 세태를 골계적으로 회화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술을 가까이 하고 삶을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면서도, 그로 인해 빚어지는 패해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이 삶을 골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고자 하는 문인들의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기도 한다.<sup>25)</sup>

앞서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들을 살펴본 바, 이와 같은 남한의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국순전>을 의인전기체산문의 효시로 보고, 이후의 의인전기체산문과 후대의 소설문학으로 이어지는 소설의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품이라고 확고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국순전>을 비롯한 가전 작품들의 갈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지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작품의 해석 태도에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국순전>이 지향하는 바를 봉건적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순의 긍정적인 형상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고 있다. 국순의 행적은 오로지 당대 통치계층의 무도함을 보여줄 뿐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관점에 따라 다른 이해를 보이기도 한다. 의인화된 소재에 집중한 해석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술의 이중적인 특성을 드러내어 그것을 통해 인간의 도리에 대한 사유나 개인적인 지향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한다. 또 작가의 창작의식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소외된 지식인으로서 임춘이 느껴야 했던 불합리한 세태에 대한 절망이나 조소가 들어있다고 보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남한에서도 가전을 소설로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부분 북한의 논의와 상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의인전기체산문을 과도기적 소설로서 바라보는 북한의 논의가 문학발전의 내적 합법칙성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가전을 소설로 바라보는 남한의

2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94(제3판), 122~123쪽.

24)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25) 윤기홍, 「가전체 문학의 갈래와 소설적 전환」, 『목원어문학』 제8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필자는 가전을 당나라 한유의 <모영전>을 모방한 것으로서 외래의 문학인 것처럼 이해하는 남한의 관점에 의문을 가진다. <모영전>의 형식을 빌었다고 해도, 그 작자는 ‘우리 사람’인 임춘이며, 그 내용은 무신정권 시기의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순전>의 출현을 우리 문학사의 큰 흐름과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교술문학설’의 유용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순전>이 무신정권의 불합리성을 꼬집고 있음을 지적하는 남한의 논의가 적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다양한 층위의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저변에는 당대 정권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작품 해석이 주로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되는 바, 이러한 공통점은 작품 해석과 문학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엄존하나 <국순전>을 형성한 역사적·정서적 경험을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음에 비롯한 것이다.<sup>26)</sup>

### 2.2.2. 비교연구의 지향성

남한에서는 가전 작품들을 논의 할 때에 의인화된 소재별로 묶어 작품 군으로 다루거나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다.<sup>27)</sup> <국순전>의 경우는 ‘술’을 소재로 한 작품유형 연구의 대상으로서 주로 다루어지게 되어 주로 <국선생전>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비교연구는 두 작품의 내용과 사상, 작품의 형성배경을 비교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거나<sup>29)</sup>, 몇 가지의 비교 항목을 설정하여 두 작품을 세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

- 
- 26) 김영, 「통일을 대비한 한국문학사 서술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2002, 120쪽.
- 27) 채성숙은 대나무를 소재로 한 가전 8편을 대상으로 한·중 비교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 연구는 크게 내용과 구조, 주제비교 연구로 이루어졌다. 작품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개별 작품의 개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같은 제목을 가진 <죽부인전>의 경우 각각의 독자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채성숙, 「한·중 죽류가전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유기옥은 ‘문방사우’ 가전을 묶어서 상호 통시적인 연계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유기옥, 「문방사우의 문학적 변용」, 『어문학연구』 제1집, 우석대 어학연구소, 1996.)
- 28)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비교한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란희,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선자,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국어국문학연구』 7집,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국어국문학과, 1981.  
김종근, 「국순전과 국선생전에 나타난 출퇴관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윤리의식』, 박이정, 2000.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연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이강욱, 「[국순전]과 [국생원전]의 서술방식과 세계관」, 『다국어수봉선생회갑기념 고소설연구』, 간행위원회, 1988.  
이승호, 「가전체소고-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 『국어국문학지』 제16집, 문창어문학회, 1979.  
정소화, 「한·중 술 소재 가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수학,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3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81.  
하경희, 「술 의인화 가전의 문학적 변용 양상과 의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9) 김현룡은 그의 논저에서 두 작품의 내용, 사상, 그리고 형성상의 비교문학적 측면을 고찰하며, 후대 작품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순전>은 간사하고 이부하는 정객들을 비꼬아 꾸짖고, 아울러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방탕하는 군주를 풍자하려는 목적성의 소설인데 비하여, <국선생전>은 미친한 몸으로 성실히 행동하여 발탁되고 충애가 지나침을 당하여 잘못을 저질렀지만 물러나 뉘우칠 줄 아는 인간, 그래서 국난을 당할때 다시 백의중군하여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일하는 그야말로 건기이작(見機而作)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훈적인 작품이라 하였다.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다.<sup>30)</sup>

한편으로는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지은 임춘과 이규보를 비교하여 작가론적 측면에서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무신집권에 의해 몰락한 문벌귀족 계층으로서 방외인적인 삶을 살았던 임춘과, 무신집권 세력에 의해 중용되어 문인으로서의 영애를 누린 이규보의 생애와 작가의식의 차이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주목하여 <국순전>에 대한 <국선생전>의 모작 가능성을 부정하고 두 작품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sup>31)</sup> 작자에 따른 두 작품의 출퇴관을 비교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32)</sup> 또,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우연적 독해를 통해 가전을 읽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sup>33)</sup>

이처럼 남한에서는 <국순전>을 주로 이규보의 <국선생전>과 묶어 논의하면서 두 작품의 차이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같은 소재를 의인화한 작품들을 한 유형으로 묶어 논의하는 남한 가전연구의 경향에 따른 것이며, 무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엇갈린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두 작가, 임춘과 이규보의 차이에 주목한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같은 소재와 형식을 빌어 지은, 서로 비슷한 작품을 면밀하게 비교함으로써 두 작품의 세세한 특질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북한에서는, 같은 작가에 의해 동일한 주제적 지향으로 창작된 의인전기체산문의 효시로서 <국순전>과 <공방전>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같은 주제의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두 작품을 함께 다룸으로써 그 주제의식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순전>을 <국선생전>과 함께 논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국선생전>의 결말부에 주인공의 성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북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사상적 지향’, 즉 ‘봉건적 통치 질서에 대한 비판’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봉건적 체제를 옹호하는 작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남북한의 <국순전>연구에 있어서 양자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 <국순전>과 <공방전>을 묶은 북한의 연구는 두 작품의 유사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남한 연구자들에게 주제별 비교연구의 주제로서 <국순전>과 <공방전>이 짝지어질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또,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묶은 남한의 연구는 북한 연구자

30) 조수학은 두 작품을 비교하여 대조표를 만들었는데, 주인공, 시조, 가족 관계, 성격, 기분, 교우관계 등과 공과에 이르기까지 총 1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며 각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수학,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3, 영남대 영남중국어학회, 1981.)

또한 김선자는 두 작품의 내용, 인물, 구성, 배경, 주제, 사상의 측면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선자,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국어국문학연구』 7,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981.)

31) 이승호는 임춘의 <국순전>과 이규보의 <국선생전>이 거의 비슷한 제재와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후자인 <국선생전>이 선자인 <국순전>을 모방한 작품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은 전혀 다른 성질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국순전>의 저자인 임춘은 무신란으로 몰락한 구귀족에 속하는 인물인데 반해 <국선생전>의 저자인 이규보는 무신란과 함께 대두하기 시작한 신진 세력에 속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임춘의 문학이 몰락한 선비의 자위책이었음에 비하여 이규보의 문학은 진출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임춘과 달리 이규보는 현실을 허망하게 보는 관념론을 비판하고, 현실자체와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활동을 긍정하는 신흥사대부의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본다. 이러한 문학사상의 차이가 두 작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국순전>은 미천한 자가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자기의 본분을 잊은 채 행동하며 시기에 맞추어 몰려설 줄도 모르는 무절제한 정객들을 풍자한 작품인데 비해, <국선생전>은 미천한 자가 성실한 행동을 통해 발탁되고 임금의 지나친 총애에 잘못을 범하나 물러나 뉘우칠 줄 아는, 국난을 당해 다시 사관되어 충성을 다하는 인물로서, 스스로의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승호, 「가전체소고-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 『국어국문학지』 제16집, 문창어문학회, 1979.)

32) 김중균, 「국순전과 국선생전에 나타난 출퇴관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윤리의식』, 박이정, 2000.

33)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연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들에게 소재별 비교연구와 작가론적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남북의 문학연구가 서로의 외연을 확장시켜줄 가능성을 보여주며, 양자의 교섭으로 이루어질 우리 통일문학사의 내용적 풍성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3. 결론

본고에서는 <국순전>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연구사를 비교 정리해 보았다. 장르의 명칭에서부터 작품의 성격에 대한 것까지, 같은 작품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난 <국순전>의 연구사를 보면 통일문학사의 기술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양자 간에는 공통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공통점에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상적·이론적 배경은 다르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논의에 공통된 지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같은 작품이라서만은 아니다.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정서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이다. 또한 남북의 차이가 차이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문학연구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연구의 지향이, 서로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미래적 지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국순전>의 연구비교를 통해 통일문학사의 기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본다. 표면에 드러난 차이에 억눌릴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양측의 문학사를 꿰어낼 공통성을 찾아가는 것, 둘 사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장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미래의 지침으로 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겠다. 한쪽을 배제하고 억압하기 보다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통성을 전제로 하여 정리하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각자가 일구어온 것을 통해 더 풍성한 문학적 성과를 기약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하나 되기’나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에 그치지 않고, 분단의 경험을 통해 성숙을 이루는 ‘진정한 극복의 문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북한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天池, 1995)
- 리성,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 『민족문화유산』 1호, 2006.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저, 어문도서편집부 편 -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조선문학통사』 1(이회문화사, 1996)
-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어문학)』 2호, 1999.
- 정홍교, 『조선문학사』 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화다, 1989)

### <남한자료>

- 강중탁, 「가전소설연구」, 『논문집』 11집, 전주대학교, 1982.
- 김건곤, 「고려 가전문학의 성립과정」, 『정신문화연구』 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84.
- 김광순, 「한국 의인 문학의 사적 전개와 성장(상·하)」, 『국어국문학연구』 15·16, 국어국문학연구회, 1967.)
- 김란희,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선자,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국어국문학연구』 7집,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1
- 김영, 「통일을 대비한 한국문학사 서술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2002.
- 김종균, 「국순전과 국선생전에 나타난 출퇴관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윤리의식』, 박이정, 2000.
- 김창룡,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창룡, 『가전을 읽는 방식』, 제이앤씨, 2006.
- 김창룡, 『고전명작 비교읽기: 한중가전』,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창룡, 『우화의 뒷풍경: 가전독법』, 박문사, 2010.
-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 서동수, 「남북문학사 통합서술의 전망」, 『겨레어문학』 28, 겨레어문학회, 2002.
- 신기형, 「가전체문학논고(상)」, 『국어국문학』 15집, 국어국문학회, 1956.
-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2001.

- 안병렬, 「가전문학과 타장르와의 비교고찰」,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2001.
- 안병설, 「가전에 대한 이견 산고」, 『명지어문학』 7집, 명지어문학회, 1975.
- 유기옥, 「문방사우의 문학적 변용」, 『어문학연구』 제1집, 우석대 어학연구소, 1996.
- 윤기홍, 「가전체 문학의 갈래와 소설적 전환」, 『목원어문학』 8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 윤용식, 「서하임춘문학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언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 이강옥, 「[국순전]과 [국생원전]의 서술방식과 세계관」, 『다곡이수봉선생회갑기념 고소설연구』, 간행위원회, 1988.
- 이명재, 「한겨에 문학사 기술 방법론」, 『어문논집』 30, 중앙어문학회, 2002.
- 이승호, 「가전체소고-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 『국어국문학지』 제16집, 문창어문학회, 1979.
- 정소화, 「한·중 술 소재 가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94(제3판).
- 조수학,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3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81.
- 채성숙, 「한·중 족류가전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 하경희, 「술 의인화 가전의 문학적 변용 양상과 의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남북한 비교문학 연구

- 국순전(麴醇傳)의 연구사를 통한 남한의 가전(假傳)과 북한의 의인전기체산문 비교-

논평 박효성

전공과 다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려니 생각보다 의문점도 많고, 궁금해서 물어볼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논평시간에 개인적인 무지에 의한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논문을 중심으로 논문에 의한 개인적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어리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너그럽게 무지에 의한 질문이거니 하고 조리있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께서는 p.1에서

고전문학의 경우, 남과 북이 모두 ‘내것’으로 삼고 있는 공동의 유산으로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sup>34)</sup> 분단 이후의 상반된 정치·사회적 환경아래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던 현대문학에 비해, 수천 년의 시간을 공유했던 고전문학은 남과 북의 민족적 공통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통일문학사의 기술을 위해 먼저 남북의 고전문학 연구가 지나온 경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른 체제하에서, 공동의 문학작품에 대해 남북은 어떠한 시각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그러한 차이에도 어떠한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통일문학사로의 전진을 위해 고려할 점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서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북 공동의 문학적 공통점과 다른점을 모색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는 동안 분명하게 공통적인 남한의 ‘가전체’와 북한의 ‘의인전기체산문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들어나지 않는 것이 궁금합니다,

또, 계속해서 p.15,

본고에서는 <국순전>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연구사를 비교 정리해 보았다. 장르의 명칭에서부터 작품의 성격에 대한 것까지, 같은 작품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난 <국순전>의 연구사를 보면 통일문학사의 기술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북의 시각차라는 것이 너무 모호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닌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순전을 원문을 읽어 보지 못했지만, 필자의 설명으로 남북한의 관점을 생각해보고 의문점을 가져 봤지만 결국 현신세계에서의 부조리와 양반의 ‘지행합일’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관점이었다는 것 말고는 극심한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34)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2001, 50쪽.

본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순전』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문학적 관점의 비교를 통해 남북의 사고의 차이점과 그것을 통한 통일적 사고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서로 같은 비슷한 관점, 또는 서로 통용 가능한 관점을 주로 다루다보니,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내용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남북의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문학사에서 공통성을 찾아가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차이점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공통성을 찾아갔다면, 조금 더 이 논문에서 공통성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게나마 논평을 쓰고, 그냥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고보니, 필자의 관점에서 많이 벗어 났을지 모르지만, 너그러이 생각해주시고, 즐겁게 이 월례회 발표를 마무리하며,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 북한영화의 비주얼 리터러시와 스토리텔링<sup>35)</sup>

-영화<우리의 향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팀 이정재

### 목차구성

1. 들어가며
  2. 영상문화 이해하기
    - 2.1 비주얼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 2.2 비주얼 리터러시, 왜 필요한가?
    - 2.3 비주얼 리터러시의 문화콘텐츠학적 접근
  3. 영화<우리의 향기> 파헤치기
    - 3.1 영화 들여다보기
    - 3.2 영화 읽고, 의미 찾기
    - 3.3 영화,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4. 나오며
- 참고문헌

### 1. 들어가며

21세기는 영상문화의 시대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영상매체를 접하며 살아간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가진 감각 중 시각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장 풍요롭게 해주었다. 영상은 이미 인간의 많은 표현 양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영상물들은 벌써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때문에 자주 접하는 영상 속 배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쉽게 노출시킨다. 같은 문화권 뿐만 아닌 타 문화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글이나 사진보다는 영상이 가지는 장점으로 훨씬 효과적인 이해를 얻어낼 수 있다.

필자는 남한과 북한의 생활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초 학술 자료인 서적에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학문에서도 지역 연구에 있어 현지조사를 통해

35) 본 글은 완고가 아니며, 앞으로 생활문화팀 내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요 및 장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자료를 수집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북한을 현지조사하기란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접적으로 북의 생활문화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한 몫 하는 것이 ‘북한영화’라 생각된다.

우선 국내에서 ‘북한영화’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양적 점검이 필요하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를 통해 ‘북한영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76건, 국내학술지논문 218건, 단행본 1,096건이 검색되었다.

- ‘북한영화’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 어떤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지
-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 21세기 연구경계가 융합적인데 있어서 이 글의 의의

## 2. 영상문화 이해하기

### 2.1 비주얼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조금 더 친숙한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 문자 해독율’과 ‘기능적 문자 해독율’이다. 처음 문자가 보급되어 질 때는 일반적 문자 해독율이 중요시 되었으나 사회의 다양한 의미들이 결합되어 가면서 기능적 문자 해독율에 대한 의미가 더욱 중시 되어졌다.

‘기능적 문자 해독율’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정치·경제·문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목적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결국 리터러시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해독능력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 비주얼 리터러시 설명 예정

### 2.2 비주얼 리터러시는 왜 필요한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상의 사용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은 대부분 영상의 형태로 전달된다. 우리는 전 분야에서 발신되는 많은 영상 메시지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독하고 있을까?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영상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서 영상에 대한 정확한 해독 능력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소양으로 요구된다.

결국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량의 처리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과 정보의 주요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

리는 현재의 지식과 정보의 의미 구성 방식이 기존의 문자 중심적인 지식과 정보의 의미 구성 방식과는 상이한, 영상 (미디어) 코드를 매개로 한 전혀 새로운 구성 원리에 대해 주목한다. 이에 대한 생산 및 수용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기반사회 혹은 영상문화 시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행 능력이 요청되고 있다.<sup>36)</sup>

북한 영화를 비주얼 리터러시 개념을 접목하여 독해하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제가 다른 북한 그리고 그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때문의 오해의 소지도 다분할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영상 해독 능력은 영상으로 보여 지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영상 안에 담긴 의미와 구성방식, 구조분석으로 남과 북의 창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인문학에서 지향하는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인문학적 접근이 접목된다면 진일보하는 연구방향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 2.3 비주얼 리터러시의 문화콘텐츠학적 접근

지금까지 ‘비주얼 리터러시’는 미술교육에서 주로 다뤄졌다.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리터러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대학원의 논문들이 특히 주를 이룬다. 북한영화를 문화콘텐츠학 관점에서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접근법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츠의 특성 때문이다.

콘텐츠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물 및 메시지로서 인간의 창의적 산물을 말한다. 콘텐츠산업은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단계 및 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뜻한다. 여기에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요소가 투입되어 문화콘텐츠 산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의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기술기반의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북한영화를 비주얼 리터러시 개념으로 분석했을 때 영상에서 보여 지는 전통자원, 문화예술, 생활양식, 이야기 등에서 묻어나는 문화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배경, 이념, 의식 등의 총체적인 생산자의 제작의도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남과 북의 수월한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전반적 요소들을 두루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주얼 리터러시의 개념 도입으로 인한 독해방식이 북한연구 중 통일 생활문화의 고민과 접목시킬 때 학술적 효과 서술 예정

## 3. 영화<우리의 향기> 파헤치기

### 3.1 영화 들여다보기

- 영화 선택 배경 및 영화의 기본정보, 줄거리, 영상 구조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예정

36)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문화교육 교육과정 기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3, 15쪽.

### 3.2 영화 읽고, 의미 찾기

- 영화 속 영상과 함께 스토리를 통해 사회·문화적 의미 해석 예정
- 전반적으로 영화는 민족성 고취를 위해 개방에 대한 예방접종식 제작의 목적이 드러남

### 3.3 영화,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 영화를 통해 ‘나’ 또는 ‘내가 속한 집단’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남한에) 시사하는 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 짚어볼 예정

### 4. 나오며

- 위의 내용 정리 및 결론

### 참고문헌